

외모도 경쟁력인 시대, 교정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2-03-02 08:39 최종수정 2012-09-25 17:48



[박영희 기자] 외모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사람들은 취업 혹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동이나 피부 관리 등을 통해 꾸준한 외모관리를 한다. 또한 외모 가꾸기의 한 방법인 성형도 시대마다 트렌드가 달라지는 등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운동이나 자기 관리로도 쉽게 달라질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치아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세련되게 가꾸어도 치아의 배열이 고르지 못하다면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특히 고르지 못한 치열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부정교합과 돌출된 입이다. 삐뚤빼뚤한 치아가 턱의 모양에도 영향을 주므로, 턱의 과도한 변형이 얼굴형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유행하는 날렵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지 못한다. 얼굴형은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콤플렉스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교정치료다. 치아의 불규칙한 배열을 교정 장치를 통해 재배열하고 정상적으로 맞물리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고른 치열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얼굴형을 만든다.

교정치료의 장점으로는 외모적인 측면 이외에도 기능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다. 가지런한 치열 덕분에 음식을 고르게 씹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치아의 마모가 사라지고 효율적으로 칫솔질을 할 수 있어 치아의 조직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못한 교정 장치 “해결 방법은?”

교정치료가 치아건강과 심미적인 측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교정 장치를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부담감과 불편함은 부정교합으로 고민인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된다.

이에 인비절라인 투명교정이 교정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대안이 되고 있다. 기간이 6주에서 9주로 일반 교정보다 짧을 뿐만 아니라 교정 장치가 투명해 일반적인 보철물에 비해 티가 나지 않는다. 또 일상생활 중 음식물 섭취도 더 용이하다.

하지만 누구나 투명교정을 통해 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구강상태와 치아의 배열은 다르기 때문에 교정치료에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현 원장)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 박은빈 교복사진 대방출! 못 남성의 첫사랑 감성 ‘자극’
- ▶ 강민경, 민폐의상도 굴욕이 안되는 이유? ‘늘씬한 각선미’
- ▶ 강호동 문자, 멀리서나마 ‘1박2일’ 시즌1 마지막 함께 “고맙다”
- ▶ 곽현화, 야릇한 바나나 사진으로 악플 정면반박? ‘네티즌이 기가막혀’
- ▶ 이파니 취두부키스, 고약한 냄새 참아내며 실제 연인 서성민과 애정과사

